

광주극장 사용 설명서

광주가 고향인 박솔희의 소설 <그럼 무얼 부르지>에는 광주극장을 애지중지하는 작가의 마음이 묻어나는 부분이 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그러니까 잘 모르는 데, 그런데 중 자주 갔던 곳 있어요?' 남자는 오래된 극장을 빠져 나와 천변 근처를 자주 갔었다고 대답한다. 이 오래된 극장은 광주극장을, 천변은 광주천변을 가리킬 터다. 광주극장은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 가는 곳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늘 곁에 있어 익숙한 공간일 수 있다.

광주극장만을 위한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이다.

1968년 큰 화재로 원래 건물은 소실됐지만 복원 후 모습을 유지하면서 반백년 세월을 견뎌 낸 까닭에 극장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박물관에 온 듯 그림으로 그린 영화 간판, 극장 내외부의 목조 장식, 2층 로비에 전시된 옛 영사기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영화 관람을 위해 시간표 확인은 필수다. 자칫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예전 그림 간판을 실제 상영작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극장 밖에서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매표소가 있고 바로 로비로 이어진다. 매점은 없지만 갓 내린 커피와 시원한 음료수를 판매한다. 상영관 입장은 극장 전체에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삼으면 된다. 행여 추위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극장 한쪽에 비치된 담요 중 취향에 맞는 걸 하나 골라서 입장하길 바란다.



2012년 4월 태준식 감독의 <어머니> 개봉 당시 올린 손간판. 광주극장에서 오랫동안 영화 간판을 그려 온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 화백과 8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



광주극장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복도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1층 로비에서 관객들을 반갑게 맞는 홍보물들 사이에 찾던 하나가 다소곳이 앉아 있다.



2층 로비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는 옛 영사기와 한국영화 포스터로 만든 입간판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체 856개 좌석 중 마음 가는 자리에 자유로이 앉을 수 있다. 영화의 이미지에 온전히 몸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최대한 스크린 가까스로 가도 좋다. 다만 상상 이상으로 스크린이 큰 탓에 목 디스크가 우려되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길 권한다. 광주극장은 어디에 앉아도 화면이 실물보다 더 큰 이미지들과 대면하게 해 주며, 극장 전체가 소리통 역할을 해 주어서 배우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 준다. 세상 밖과 완전히 차단된 채 영화라는 꿈의 세계에 침잠하고 싶은 이에게 광주극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이상적인 극장이다. 특별 기획 프로그램도 숙지해 두면 좋다. 개관 80주년을 앞둔 작년 말부터 영화사의 결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행사들이 릴레이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첫 번째 '극장과 영화의 연대기'로,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광주극장에서 개봉했던 시대별 주요 작품을 상영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영화로 꼽히는 <미몽: 죽음의 자장가>(1936)부터, 빌리 와일더의 <선셋대로>(1950), 김기영의 <하녀>(1960), 마틴 스코시즈의 <성난 황소>(1980), 임권택의 <서편제>(1993)처럼 동서고금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관객들과 다시 만났다. 올해도 연대기는 계속된다. '음악과 영화의 연대기'로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의 재즈 콘서트, 무등실내악단 시네마콘서트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크 랑시에르의 <영화 우화> 등을 번역한 유재홍 교수, 영화 비평집 <정확한 사랑의 실험>을 펴낸 신형철 문학평론가를 초청하여 추천작을 상영하고 시네토크를 진행하는 '관객과 영화의 연대기'도 계획 중이다.



오래된 2층 사택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영화의 집. 상영회, 토론회, 좌담회 장소와 전시 공간, 레지던시 공간도 겸하고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다.

관객이 모이는 '영화의 집'

극장 1층 로비에서 오른쪽 통로로 들어서면 쪽문이 하나 있다. 엘리스가 토끼를 따라가다 미끄러졌던 동굴처럼, 쪽문을 열자마자 넓은 정원과 흰색 페인트를 곱게 펴 바른 2층 양옥이 나타난다. 이곳은 한동안 방치돼 있던 극장 사택 건물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거친 후, 올해 2월 '영화의 집'으로 새로이 태어났다. 옛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집 안팎 인테리어에 변화를 준 덕에 세련미가 더해졌다. 1층은 각종 상영 및 좌담회 공간으로 주로 쓰이며, 2층에는 광주극장의 아카이빙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역사기에서 필름, 영화 티켓까지, 광주극장의 80년 역사가 쌓인 영화의 집에서 시네토크가 열릴 때면 감독과 관객들이 가까이 마주 앉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밀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영화의 집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관객이다. 관객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영화모임은 광주극장만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2010년 고전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정기 상영회 '토요시네클럽'이 시작됐고, 2012년에는 홀로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



영화의 집 2층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는 오래된 필름부터 대표 일보, 단체관람 티켓까지 각종 자료들이 정리돼 있다.



차이밍량,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이송희일 등 광주극장을 찾은 영화인들이 광주극장과 영화의 집 사이 담장에 담긴 친필 사인.



영화의 집 1층 홀의 벽면에 걸린 신문기사 스크랩. 개관 당시인 1935년부터 긴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을 위한 '번개남녀', 한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수요영화모임' 등이 시작되었다. 짐 자무시의 <천국보다 낯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3명의 감독, 132편의 작품을 상영하며 활발히 유지되고 있는 수요영화모임을 처음 주도한 이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신진아 대리. 현재 극장 운영과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그는 "20대를 여기서 거의 보냈을 정도로 극장과 인연이 깊다."며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오롯이 영화를 본 것 같다."고 자랑스레 애정을 드러냈다.

올 초부터는 '화요스터디'도 다시 시작되었다. 화요스터디는 운영 주체도 참여 주체도 모두 관객이다. 화요스터디의 길잡이는 광주시네마테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맹철 씨. 과거 토요시네클럽을 운영하기도 했던 유맹철 씨는 화요스터디의 목적이 단순히 "인문학적 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 자체에 집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10대부터 50대까지, 학생, 직장인, 영화인,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다. 이들 중에는 고전영화와 예술영화에 해박한 교수들도 여럿 있다. 2010년부터 햇수로 6년째 관객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유맹철 씨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모임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 보기 운동을 전개하거나,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해 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러한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나 지원의 안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광주극장을 거점으로 삼삼오오 모여야 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들

광주극장을 바라보는 영화의 집 담벼락 한 귀퉁이에는 이곳을 다녀간 감독들이 남긴 친필 사인이 있다. 그중 맨 첫머리에 적힌 대만의 차이밍량 감독의 사인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광주극장에서 <안녕, 용문객잔>을 상영했을 때 극장을 방문한 차이밍량 감독이 격려와 함께 남긴 사인이란 한다.

차이밍량의 <안녕, 용문객잔>은 폐관을 하루 앞둔 복화극장에 바치는 애가인 동시에 모든 오래된 극장에 대한 찬가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40분 넘게 이어지는 침묵, 절름발이 매표소 여직원과 영사기사와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한 노배우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배우는 내일이면 사라질 극장을 찾아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용문객잔>을 관람한다. 한 노인의 인생을 낚은 극장의 운명에 빚낸 덕분인지, 이 영화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최상의 예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화 속 복화극장처럼 광주극장에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 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동시대 개봉영화를 주로 상영했지만, 전반적인 극장 환경이 변화하며 점차 관객이 줄어 갔다. 1997년에는 노후된 영사기와 좌석을 교체하는 리노베이션을 거쳤다. 그런데 1998년 6월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수난을 겪는다. 인근에 유치원이 있다는 이유로 극장이 유해시설로 간주됐던 것이다. 결국 폐쇄 명령까지 받았던 광주극장은 2002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낼 때까지 존폐 위기에 시달려야 했다.

2002년, 광주극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에 지원해 변화를 모색한다. 이미 1999년을 기점으로 광주에 멀티플렉스가 생겨나면서 상업영화 극장 간에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였다. 타 극장에 비해 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였던 광주극장은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정체성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관객은 오히려 줄고 운영은 더 힘들어졌다. 1997년부터 광주극장의 이사를 맡고 있는 김형수 씨에 의하면, 당시 지방



광주극장을 이끌어 가는 운영진들. 왼쪽부터 신진아 대리, 김형수 이사, 정홍주 영사실장. 세 사람 뒤의 그림은 박태규 화백이 그린 <Remember 20140416 꽃>이다.

에서 예술영화를 든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한다. 심지어 필름 손상을 이유로 배급사로부터 상영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다.

오늘날 광주극장이 안고 있는 고충은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축소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9월 재공모에서 선정이 되기는 했으나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광주에도 CGV의 아트하우스가 들어서 예술영화 관객이 분산되고 있는 판국에,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축소는 극장 운영진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김형수 이사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는 시기적으로 전국의 예술영화관들이 연대와 네트워크 결성을 도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극장에 붙는 '마지막 단관'이라는 수식어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작 다른 단관 극장들이 사라질 때 지켜 주지 못했잖아요. 광주극장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단관이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니깐 거기에 거부감이 들어요. 우리가 수문장도 아닌데 극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내몰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지키기보다는 극장을 가꾸고 변화시키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주변 환경의 악화에도 늘 평소처럼 영화를 들고 싶다고 말했다. "만약 내일 문을 닫더라도 마지막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평소처럼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할 생각"이라는 그의 말에서 우직함이 느껴진다. 오늘도 내일처럼 영화를 상영하겠다는 광주극장의 약속, 그것은 관객이 영화가 있는 그 극장으로 가는 이유이기도 하리라.

취재/사진 이도훈

관객들이 모여 함께 영화를 보고 공부하는 화요스터디 현장. 발제자가 영화의 주요 장면을 분석한 뒤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시작, 힘찬 출발

동성아트홀과 오오극장



대구 동성로 부근에는 그야말로 엮여지면 코 닿을 거리에 멀티플렉스가 모여 있다. 교차로를 가운데 두고 통이의 큰 쇼핑몰과 상가 건물마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하나씩 들어서 있고, 1922년 개관한 극장을 전신으로 둔 만경관도 인접해 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 센텀시티나 부천 중동도 영화관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지만, 눈 돌리는 데마다 CGV 로고가 있는 풍경은 조금 생경하다. 이 멀티플렉스 숲에 작은 극장이 둘 있다. 예술영화관 동성아트홀과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이다. 2015년 2월 폐관 소식으로 관객들을 안타깝게 했던 동성아트홀은 다행히 지역 독지가가 인수하여 재개관할 수 있었다.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같은 2월 개관한 오오극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극장 운영으로, 대구 독립영화의 에너지가 확산되고 '오오극장 키트'가 출현하기를 꿈꾸고 있다. 오랜 세월 대구 관객들과 추억을 나뉜 동성아트홀과 이제 막 야심 찬 출발을 시작한 오오극장은 사뭇 다른 듯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슷한 고민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



동성아트홀 입구에서 로비로 들어가는 벽면. 국내외의 다양한 독립예술영화 현물권과 라이너-베르너 파스빈더 회고전 등 특별 기획한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관객들의 자발적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 동성아트홀릭 회원들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들도 한쪽 벽을 채우고 있다.

관객이 키운 '다른 영화'의 텃밭

1992년 동성아트홀이 동성로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 이곳은 소극장 거리였다. 지금은 극장들이 모두 문을 닫고 보석상이 늘어서 있다. 낮은 상가 건물의 좁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가면 극장 입구가 등장한다. 지금까지 동성아트홀에서 상영한 영화 팸플릿이 옛날 문방구의 연예인 책갈피처럼 정성스럽게 코팅되어 벽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낮은 좌석 배치도와 자리 번호가 등반이에 큼직하게 박힌 객석, 단골 관객부터 대구 출신 배우들까지 동성아트홀의 친구들을 찍은 사진, 어느 크리스마스에 붙인 것인지 모를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모두 동성아트홀이 쌓아 온 시간을 보여 준다.

2015년 2월 동성아트홀은 폐관을 결정했다. 2014년 9월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대상 극장에서 탈락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결국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소식에 지원 정책에 대한 성토부터 대기업의 독립예술영화 상영에 대한 문제 제기, 지방의 독립예술영화관이 처한 딜레마까지 다양한 논의가 촉발됐다. 그리고 3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대구 광개토태령의 김주성 원장이 동성아트홀에 전격 투자를 약속하고 극장을 인수한 것이다. 동성아트홀은 다시 문을 열었고, 리모델링과 시설 정비, 관객을 위한 새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하철과 야구장에 광고도 시작했다. 재개관 이후 두 달, 동성아트홀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남태우 프로그래머와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동성아트홀은 어떻게 운영 중인가? 극장 리모델링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시공은 못 들어갔다. 극장이 워낙 낡아 영상 시설 교체부터 로비 인테리어까지 다 계획하고 있다. 설계에 공을 들이다 보니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상영작은 어떻게 구성되나?** 예술영화, 한국 독립영화, 고전영화를 상영한다. 최근엔 오오극장에서 소화 가능한 한국 독립영화 편수를 조금 줄이고, 멀티플렉스에서 수용 가능한 해외 예술영화 상영도 줄여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영



동성아트홀 남태우 프로그래머

화를 상영한다. 오오극장이 없고 멀티플렉스가 예술영화를 틀지 않았을 때 우리 극장에서 모두 상영했다. 영화관에는 상업성도 있지만 공공성, 다양성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되도록 다양한 영화들을 보여 주려 했다.

공공 문화 공간의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민 센터나 미술관, 도서관처럼 거점 지역에 독립예술영화관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 정도 예산도 없고 인식도 부족했다. 그래서 민간 극장에 다양한 영화를 소개하는 역할이 넘어 왔던 건데, 이젠 CGV로 상징되는 대자본이 들어왔다. 소위 다양성영화를 상영하면서, GV나 공동체 상영처럼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도 가져다 산업화시키고 있다. 그쪽에선 독점에 대한 비판도 면하고 다양함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되 그중에서 관객이 안 드는 것은 빼 버린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것도 빼고. 대구에도 2008년 CGV 아트하우스가 들어온 뒤, 동성아트홀 관객이 확연히 줄었다. 한 달에 26,000명 오던 관객이 13,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줄었다. 그런 상황에 영진위에서 지원을 끊으니 더 힘들어졌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없나? 전혀 없다. 원래 영진위 지원 사업도 4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돼야 하는데, 추석 직전엔야 기습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우리를 포함해서 탈락한 5개 극장은 다 지원금이 들어오면 적자를 메꿀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대처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저런 방안을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폐관을 결정하게 된 건가? 관객들과 대화도 하고, 인디스페이스의 원승환 이사와의 논의를 나눴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다. 회원 제도나 협동조합 체제를 만든다고 해도 그걸로 과연 몇 달

이나 운영이 가능할지, 기존 극장 회원들 주머니돈만 뺏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됐고. 시민사회 지원도 찾아보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지금 투자자인 김주성 원장을 만나게 됐다. 동성아트홀을 인수하면서 김 원장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극장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 같더라. 현재 한국의 문화 지원 정책을 봤을 때 민간 자본이든 개인 투자든 금전의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것 같다. 결국 자생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동성아트홀의 경우 일단 돈은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극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단계다.

관객들이 직접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기 모임도 하고 극장에서 봉사 활동도 할 만큼 관객 커뮤니티가 활발하다고 들었다. 2005년에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동성아트홀릭'이란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그 회원들이 지난 10년간 일요일마다 와서 매표도 하고 영사며 청소까지 다 해 줬다. 이런 경우는 우리 말고 없을 거다. 극장의 수호신이라고나 할까. 요즘은 새 플랫폼들이 생기고 카페의 화력이 약해져서 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공식 회원 제도를 만들어서 연회비를 받는 대신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연대를 만들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운영이 안정화되면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극장 건물 2층에 세미나나 토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큰 회의실을 만들고, 4층의 작은 방들에는 빔프로젝터와 장비를 설치해서 '작은 영화 모임방'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옥상에서 다 같이 파티를 할 수도 있고. 동성아트홀을 멀티플렉스와 다른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삼삼다방 공개장이 모여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오오극장 인근 옥상에는 삼삼다방이 자리하고 있다.

독립영화의 활기찬 보금자리

동성아트홀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자리한 오오극장은 대구경북영화협회와 민예총 대구지회, 미디어펀다가 뜻을 합쳐 지은 극장이다. 대구에 다양한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독립영화 창작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는 목표로 문을 열었다. 공간이 좁아 객석을 55개밖에 놓을 수 없었지만 덕분에 '삼삼오오' 옹기종기 정다운 공기를 얻게 됐다. 상영관 앞에는 오오극장의 사랑방 내지는 응접실 역할을 하는 삼삼다방이 있다. 극장에서 운영하는 카페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극장에서 모아 둔 영화 잡지며 전문 서적, DVD도 볼 수 있다. 벽면은 내버려두는 대신 갤러리로 꾸리고 있다. 극장을 방문한 5월 말에는 대구 지역 작가들이 재해석한 독립영화 포스터를 전시하고, 포스터당 다섯 매석을 5만 원에 판매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지방 예술가와의 협업과 독립영화 관련 전시, 관객 참여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꾀하는 셈이다. 삼삼다방에서 오오극장 권현준 프로그래머와 만나 새내기 극장의 포부를 들었다.

오오극장을 개관하게 된 한 계기가 뭐였나? 2012년 대구 민노총 지회의 자립예술 세미나 주제가 '대구의 결핍'이었는데, 그때 영화 분야에서 독립영화전용관이 필요하

동성아트홀이 관객들과 주고받은 영향이 어떤? 관객에게 영향을 준 부분이라면, 극장에 대한 인식을 만들었다는 것?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잘 몰랐던 관객들이 우리 극장을 통해 다양한 영화가 필요하고 좋다는 걸 알게 됐을 거다. 상업영화 말고는 상상할 수 없던 지역에서, '다른 영화'의 수요를 만들고 그것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 거다. 우리가 받은 영향이라면, 관객의 힘을 믿고 우리도 힘을 얻는 법을 알았다. 폐관 발표 때도 관객들이 직접 극장을 인수하자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며 감동도 받고 더 열심히 개선안을 찾게 됐다. 그동안 묵묵히 동성아트홀을 찾아 줬던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싹이나 다름없던 이 극장이 텃밭으로 클 수 있었다. 예전에는 동성아트홀이 독특한 영화를 트는 하나의 극장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상징적인 곳이 됐다. 영화문화를 정착시키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게 생겼다.



오오극장의 특별함 열 가치를 자랑한 벽면. 관객들이 쉽고 친숙하게 극장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구에 동성아트홀이 있긴 하지만, 1년에 독립영화가 1천 편 이상 만들어지고 5~60편이 개봉하는 상황에서 한 극장이 그 많은 독립영화를 소화하기는 힘들다. 동성아트홀은 해외 예술영화도 같이 상영하니까, 독립영화전용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직 많지 않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상영관이 만들어지면 제작과 배급도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오오극장이 설립된 뒤부터 독립영화가 대구 문화계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독립영화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거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실질적인 성과들로 바꾸는 게 목표다. 개봉할 수 있는 장편영화가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제작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극장 인지도나 관객과의 소통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겠다.** 관객들과 접점을 갖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GV나 특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객의 날' 같은 행사도 기획 중이다.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 많은 인원이 모이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이 아담한 공간이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관객의 날은 어떤 행사인가? 아직 준비 중인데, 7월 중에 첫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 관객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겠지만, 만남의 콘텐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영화도 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관객들의 요구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야극장을 한다거나, 다른 방식의 만남을 갖는다거나.

오오극장의 GV 분위기는 어떤가? <파티51> 때 GV와 함께 공연을 했다. 밤섬해적단이 55개의 객석 앞 좁은 공간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관객들의 신난 표정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 <그라운드스의 이방인> 김명준 감독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대형 극장에선 GV나 무대 인사를 해도 객석이 멀어서 관객들의 표정을 볼 수 없고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정말 관객과의 거리가 코앞이라 좋았다. 공간이 좁은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밀착된 스킨십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나? 지금 상영관에서 혼자 <산다>를 보고 계시는 관객. 연세가 65세쯤 되는 여성인데, 독립영화를 잘 아는 분이 아님에도 계속 극장에 찾아오신다. 이전에 자주 가던 공간이 없어져서 새로운 아지트를 찾다가 오오극장을 발견했는데, 한 번 와 보니 마음에 들어 계속 오게 된다고 하셨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꼭 스태프들에게 소감

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VVIP다. **독립영화에 대해 모르던 관객이 오오극장을 통해 시네필로 거듭나는 건가?** 그렇다면 좋겠다. 극장에 10대 관객들도 더러 오는데, 그들이 '오오극장 키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다양한 독립영화를 보고 영화의 꿈을 키워 나가면서 진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좋겠다. 영화감독이 되고 나서 "저는 오오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고 인터뷰를 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상상한다. **부근에 멀티플렉스를 비롯해 여러 영화관이 모여 있는데, 운영에 영향은 없나?** 아무래도 관객들은 CGV를 많이 찾는다. 대기업 멀티플렉스 중심의 관람 환경이나 작은 공간들의 어려움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오오극장은 지금까지 공적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계속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대구 시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가 4회 정도다. 전체 시민을 합치면 1년에 1억 번 영화를 보는 거고, 300원씩 1억 번 영화발전기금을 내면 300억이 되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지역 영화관에 대한 공공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화 제작지원 쪽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에 제작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 규모가 2,500만 원밖에 안 되니 장편 지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단편 5편 정도를 선정해 지원한다 해도 1편당 500만 원밖에 안 돌아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오극장이 생기면서 중구청에서 중구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 제작지원 같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다.

지역 독립영화관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사람. 8월에 대구단편영화제가 시작하는데 아직 스태프를 못 구했다. 어떻게 인력을 키울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돈인데, 영화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다. 좋은 영화와 잘되는 영화가 다르고, 영화의 운명이 창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잘될 만한 영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1년에 관객이 3만 명만 들어도 운영은 가능할 테니까.

오오극장만의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싶다. 대구는 여기서 상영하지 않으면 못 보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오오극장이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 쿼터영화제, 인디피크닉 같은 행사를 계속 개최하면서 오오극장의 역동성을 어필하고 싶다. 거기서 정체성도 찾아 나가고.

인터뷰 김송요 | 정리 김민범 | 사진 김지은



오오극장 권현준 프로그래머



삼삼다방 한옥에 마련된 영화 잡지와 DVD들

영화의 아지트, 시네필의 놀이터

대전아트시네마



올해 10주년을 맞은 대전아트시네마의 역사는 사실 더 오래됐다. 현재의 극장 형태를 가지기 전인 1997년에 시네클럽으로 출발했으나, 헛수로 19년째 대전 지역의 영화문화를 지켜 온 산증인인 셈이다. 대전아트시네마는 다양한 독립영화, 예술영화, 고전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면서 연 1~2회 정도 영상아카데미와 영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바로 '씨네필의 밤'이라는 심야상영 프로그램이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새 영화를 같이 보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로, 말 그대로 영화를 사랑하는 시네필들이 모여 밀도 있게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대전 시네필들의 둘도 없는 공간인 대전아트시네마는 현재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영진위 지원이 중단된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아트시네마는 2년 전부터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커뮤니티 시네마 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대전아트시네마 강민구 대표에게 극장의 현황과 고민에 대해 들었다.



카페처럼 꾸며진 대전아트시네마 로비. 영화를 보는 한편, 커피 한 잔과 함께 책과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영사기와 필름캔, 영화 엽서, 책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극장 로비.



대전아트시네마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심야상영 '씨네필의 밤' 포스터.

대전아트시네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대학 졸업 후 친구와 함께 시네클럽을 운영했다. 이후 시네마테크 운동을 하면서 여러 워크숍과 레퍼토리 상영회를 진행했는데, 안정적인 상영 공간이 절실해졌다. 그래서 2006년에 대전아트시네마라는 예술영화전용관을 개관하게 됐다.

극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처음에 개관했던 공간이 노인요양병원으로 바뀌면서 1년 만에 이전을 하게 됐다. 그때 옮긴 공간에서 지금까지 극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 200석 규모의 옛날 소극장이었는데 이전할 당시에 스크린 앞 좌석을 20석 정도 철거했고, 디지털 상영을 하게 된 이후 2층 좌석 출입을 제한해 현재는 100석 정도의 좌석을 운용하고 있다. 조직적으로는 예전에 시네클럽을 함께하던 친구들이 다 떠난 상태라 혼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친구들은 후원회원으로 지속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2년 전에 '마을극장 불협동조합'을 함께 만들어, 협동조합 방식으로 극장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1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2월의 로맨스', '경계를 바라보는 키노-아이' 등의 영화제를 진행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감회가 어떤가? '어렵게 버텨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시네마테크 전용관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말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나 지역은 관객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예전에 비해 영화 관람 패턴이 상당히 바뀐 터라,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관객들을 모으기 위해 영화 상영 이외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영화강좌를 통해 충성도 있는 관객 혹은 관객들의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아직도 미지수다. 사업들도 아직은 진행 중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할 거다.

시네클럽을 비롯한 관객 모임이 있을 듯한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기존의 회원들 모임 외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는다. 자발적인 관객 모임이 있을 때는 장소 제공 정도의 협조를 하고 있다. 나도 모르는 관객들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밴드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더라. 그것도 두 개씩이나. 이런 건 순수하게 관객들 몫이라 생각한다. 사실 지금까지 이리저리한 관객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는 건, 관객들 스스로의 방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운영자가 정해지면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관객들이 극장에 가장 크게 바라는 점은 뭔가? 아무래도 시설 문제다.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힘든 일이라, 극장 측에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좀 큰 투자자를 만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각도로 알아보는 중이다.

대전의 지역적 특수성이 극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지역적인 특수성은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이 크다. 대전은 지리적인 특성상 서울이 가깝다 보니, 주로 서울에서 주말에 문화 소비를 하고 오는 경향이 많다. 영화도 예외적이지 않다.

지역 영화관이 오래도록 운영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향후에는 어쨌든 극장 운영에 대한 자생력을 더욱 길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 또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여럿이 함께 해도 극복이 안 된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역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 영진위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많은 독립예술영화관들이 위기에 처했다. 현재 영화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굳이 할 말이 없다. 영진위는 '영화 진흥'이라는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 생각한다. 영진위 위원들도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10주년이기 때문에 10월 10일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고민 중이다. 조만간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독립예술영화관을 향해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강릉 시내 중심에 자리한 신영극장은 강릉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자 대표 극장이었지만 멀티플렉스 시대를 맞으며 문을 닫게 됐다. 한동안 폐관 상태로 남아 있던 이곳을 강릉 시민들이 힘을 모아 독립예술극장으로 다시 만들어 냈다. 바로 2012년 개관한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이다. 올해로 만 3년이 된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은 찰리 채플린 특별전, 영화로운 심야극장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개관 3주년을 기념했다.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박광수 프로듀서에게 지난 3년 동안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각오를 들었다.



극장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강릉씨네마테크의 회원들과 강릉 시민,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의 협력으로 2012년 5월 18일 개관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다. 극장을 운영하는 강릉씨네마테크는 1999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 주려는 영화 관객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어, 정동진독립영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극장에서 볼 수 없는 독립영화를 공동체 상영 방식으로 강릉 시민에게 소개해 왔다. 그러다가 안정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영화 소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12년, 폐관 상태이던 신영극장을 임대해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을 개관했다. 보증금 마련 프로젝트 '나는 주인이다'를 비롯해, 개관에 필요한 많은 부분에서 강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받았다.

프로그램 구성 및 상영작 선정의 원칙이 있다면? 강릉에도 멀티플렉스가 있긴 하지만 어느 멀티플렉스와 다르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개관 3주년 프로그램 '영화로운 심야극장'을 찾은 관객들.



<원나잇 온리> 김조광수 감독과의 GV 진행 현장. 감독과 직접 만나는 GV 때면 관객들의 열기로 극장 안이 가득 찬다.

않게 특정 영화들이 과도하게 상영되는 측면이 있다. 신영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볼 수 있는 영화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독립영화나 다양한 해외영화를 지속적으로 개봉해서 여러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기 위해 서울이나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SNS,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데, 관객들과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SNS는 극장의 상영 시간표나 특별 프로그램을 알리는 기능 위주이고, 개봉작 등과 관련한 의견들은 주로 블로그를 통해 주고받는다. 관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극장을 찾는 관객들과 직접 이루어지는 편이다. 관람한 영화에 대한 느낌이나 극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스태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다.

온/오프라인 관객 모임이 있는지? 월 2회 운영되는 회원 모임(강릉씨네마테크 회원, 나는 주인이다 회원,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씨네필 회원 등)이 있다. 강릉씨네마테크 회원들이 주도하는 이 모임은 영화 1편을 정해서 같이 관람하고, 뒤풀이에서 영화 이야기를 이어 간다. 현재는 쉬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인상적인 관객이 있다면? 신영에서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이 몇 분 있다.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와 신영의 개봉작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영의 개봉작을 믿고 관람하기도 하는 상호 믿음의 단골 관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관객이 있기 때문에 개봉작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도 생긴다. 더불어 극장을 정기적으로 찾아 영화를 보던 관객이 강릉씨네마테크 회원이 되거나 극장 자원활동가 혹은 정동진독립영화제의 자원활동가가 되어 함께 활동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다.

관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나? 그저 영화를 많이 봐 주시고, 신영에도 자주 오시기를 바랄 뿐이다. 조만간 쾌적한 의자로 바꿔 드리고 싶은데, 시점을 확답 못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다.

영진위의 독립예술영화관 지원 정책이 '영진위가 지정한 위탁 단체가 선정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편됐다. 극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있

다면.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안정과 독립이다. 대형 극장과 대형 영화들 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려 있는 지금의 영화산업 시장 상황을 보자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과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원 제도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 자립과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방안들은 모색 중이다. 희망적이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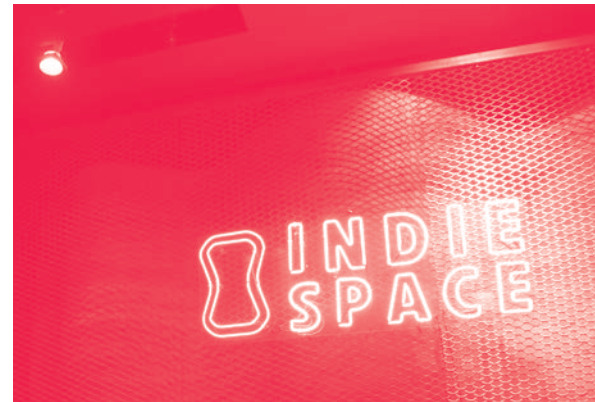
지역의 독립예술영화관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2012년 개관 이래 3년간 많은 영화를 강릉 시민에게 소개해 왔고, 의미 있는 관객의 증가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인구 20만의 소도시에서 예술영화전용관은 버텨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가 걱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숫자로는 적을지 몰라도) 적지 않은 관객이 극장을 찾아 주셨고, 새로운 영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게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이 든든한 바탕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모든 지원이 중단됐다. 다양한 영화를 지역 주민에게 꾸준히 소개하면서 경험했던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지원 사업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의 독과점 시장에서 영화문화의 다양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말만 독립예술영화가 영화산업의 근간이며 한국영화의 미래라고 떠들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뒤따르는, 미래를 계획해 가는 정책과 비전을 갖춘 영진위가 아닐까 한다.

올해 어떤 계획이 있나? 장기적인 향후 계획도 궁금하다. 의자도 바꿔야 하고, 회원도 늘려야 하고, 재정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지만 하다. 독립예술영화의 제작과 배급 그리고 개봉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객의 문화 향수권 보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다. 한국영화의 미래가 독립영화에 있다고 믿는다면 더욱 그렇다. 일개 극장에 불과하지만 우리 극장 스스로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는 준비대로 하되,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문화 정책도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2015년 우리의 계획 중 하나다.

취재 윤도연 | 사진제공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전국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꿈꾼다

인디스페이스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가 광화문을 떠나 3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했다. 종로3가의 서울극장에서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와 한 지붕 세 가족을 이루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된 것이다. 한국 독립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며 다양한 상영작 개봉과 기획전, 이벤트로 새로운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인디스페이스. 2007년 개관 때부터 자리를 지켜 온 운영진으로부터 개관부터 휴관, 재개관에서 이전까지 다사다난했던 기억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고, 인디스페이스의 관객 기자단으로서 독립영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인디즈 친구들과 만나 독립예술영화관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에 대해 들어 봤다.

2007년 11월 8일, 독립영화만을 위한 전용 극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인디스페이스'라는 이름에는 독립영화의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개관 초기부터 운영진으로 일해 온 이현희 프로그래머와 박현지 홍보팀장에게 그간의 사연들을 듣는다.

인디스페이스에는 처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현희 |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은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시 한독협에서 근무할 때라 인디스페이스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초로 생기는 독립영화전용관이라 기대도 컸고 그 시작을 함께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현지 | 2004년부터 한독협 자원활동가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인디스페이스 스태프로 참여하진 않았다. 개관 당시에는 전공이 의상디자인이라 관련 분야로 취업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 분야 특유의 열정페이에 회의감을 느끼던 중 현희 언니와 원승환 소장님(현 인디스페이스 부관장)의 꼬임에 넘어갔다. 개관한 지 1년쯤 후에 홍보팀으로 정식 합류했다.

개관 당시 운영 상황은 어땠는가?

현희 | 그때도 여전히 사람이 없었으나 상영할 영화도 없었다. 처음 윤성호 감독의 <은하해방전선>을 개관 작품으로 염두에 두고 배급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에는 김삼력 감독의 <아스라이>, 태준식 감독의 <필승 ver.2.0 연영석> 같은 영화들을 개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엔 라인업에 대한 고민이 좀 줄었다. 극장이라는 상영 공간이 생기면서 기존의 인디스토리 외에도 시네마 달, 키노아이, 어뮤즈 같은 배급사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2009년 인디스페이스의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다.

현희 | 2009년 정권이 바뀌면서 일련의 좌파 문화인 색출 작업이 진행됐다. 인디스페이스는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을 위탁받은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에서 개관한 극장이었는데, 영진위가 합의 과정 없이 운영자 공모제로 변경했다. 우리는 그 과정에 반발해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운영 중단 이후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나?

현희 | 2009년 12월 31일에 운영을 중단한 후에도 공동체 상영 같은 활동은 계속했다. 그 후 안정숙, 김동원, 김동호를 주축으로 고영재, 곽용수, 김조광수, 원승환, 임순례, 임창재, 정상진, 조영각 등이 모여 민간독립영화관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적 지원 없이 민간 자본으로 극장을 설립하기 위해 민간독립영화전용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그 후 장소를 물색하며 본격적인 재개관 움직임이 시작됐다. 마땅한 공간을 찾으며 후원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2년 동안 준비해 2012년 5월 광화문에서 재개관할 수 있었다.

재개관 후 달라진 점은 뭐였나?

현지 | 단관 극장이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명동의 중앙시네마에 있을 때는 일반 개봉관과 예술영화관인 스폰지하우스가 함께 있어 전체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았지만, 단관이 되니



서울극장으로 이전한 후 새롭게 단장한 매표소.

영화가 시작하면 로비가 한산해져 늘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됐다. 영화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만 극장의 존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이번에 서울극장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이 있었나?

현희 | 장소 이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마침 서울아트시네마가 먼저 서울극장으로 이전했다. 서울시에서 복합영상문화공간인 시네마테크 조성 사업을 발표하면서 시네마테크와 독립영화전용관이 함께 있는 공간이 관객들에게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을지, 또 어떤 부분들을 함께할 수 있을지, 다양한 실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됐다.

이전 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현지 | 처음 중앙시네마에 있었을 때와 비슷한 모양새가 됐다.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그리고 일반 개봉작들을 상영하는 서울극장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관객들로서는 한 곳에서 세 가지 입맛을 채울 수 있게 된 셈이다. 인디스페이스 상영관은 서울극장 6관으로 기존 110석에서 딱 100석이 늘어난 210석이 됐다. 부디 늘어난 객석을 관객들께서 더욱 가득히 채워 주셨으면 한다.

프로그램 구성이나 상영작 선정의 원칙이 있나?

현희 | 이전 후 프로그램은 개봉작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CGV 아트하우스의 배급 라인과는 차별화된 인디스페이스만의 라인업으로 진행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다. 대신 멀티플렉스나 일반상영관을 찾지 못하는, 또는 배급사조차 찾지 못하는 영화들을 관객에게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 박준범 감독의 <디렉터스 컷>과 구자환 감독의 <레드 톱> 등 숨은 보석 같은 영화들의 개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 후 계획과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의 장기 계획을 말해 달라.

현희 | 이전하는 공간에서 자리를 잘 잡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더 욕심을 내자면 앞으로도 잘 버텨서 인디스페이스 2호점을 개관하고 싶다.

현지 | 장기 계획은 전국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다. 지금은 서울에 네 곳, 그리고 지역에 대구 오오극장 한 곳뿐이지만 우리 법인명이 '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인 것처럼 전국에 독립영화전용관을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를 차차 진행해 나갈 거다.

인디스페이스 관객 기자단 인디즈는 2014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 4기가 활동 중이다. 개봉작 리뷰, 인디토크(GV) 기록, 감독 및 배우 인터뷰 등을 통해 독립영화의 다양한 소식들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하자.

지원 | 인디즈 3기 최지원이다.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영화관을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보며 공부하는 관객이다.

도경 | 인디즈 4기 이도경이다.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 영화 동아리에 들어갔고 촬영도 하게 됐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나 궁금해서 이런저런 독립영화를 접하게 됐다.

지모 | 인디즈 3, 4기 활동 중인 양지모다. 어릴 때부터 영화에 관심이 많아 일단은 많이 봤고 극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투자 배급 상영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이 궁금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던 중에 독립영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인디스페이스와의 첫 만남이 어땠나?

지모 | 멀티플렉스가 아닌 색깔이 분명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을 찾다가 인디스페이스를 알게 됐다. 깔끔하고 깨끗해서 놀랐다. 의자가 폭신한 게 매력적이었고. 무슨 영화를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지원 | 이송희일 감독의 <백야>, <지난여름 갑자기 + 남쪽으로 간다>가 첫 영화였다. 독립영화관에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놀랐다. 귀여영화는 처음이었는데, 여성 관객이 굉장히 많더라. 열기가 너무 후끈해서 극장 안이 덥게 느껴질 정도였다.

도경 |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를 보게 된 건 인디즈 활동을 시작한 뒤다. <망원동 인공위성>이 첫 영화였는데, 좌석마다 후원한 분들 이름이 적혀 있어서 다른 극장보다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참여를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인디즈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원 | 영화 전공이 아니라서, 여러 센터의 영화 강좌를 찾아다니며 들었는데 혼자 공부를 하니 지치고 게을러지더라. 인디즈 활동을 하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영화를 보고 리뷰나 기사를 쓰기 위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모 | 그전까진 그저 많이 보고 단순히 즐기는 정도로 끝났었다면,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싶어졌다. 늘 감독님들에게 궁금하게 많아서 GV로는 성에 안 찼는데, 인디즈 활동을 하면서 엄청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도경 | 영화 동아리 활동만으로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글 쓰는 활동에도 관심이 있던 차에 인디즈 모임이 있어서 지원했다.

인디즈 활동을 하며 좋았던 일이나 어려웠던 점은?

지모 | 글을 쓰기 난감한 영화들이 있었다. 정해진 영화를 보고 글을 써야 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영화라도 어떻게든 소화해서 써 내야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솔직히 있더라. 반대로, 예상보다 영화가 훨씬 좋았던 경우도 있고, <철의 꿈>은 인디즈 활동이 아니었으면 아마 안 봤을 텐데,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구나 하며 깜짝 놀랐다.

지원 | 개봉작을 다 봐야 한다는 게 좋았다. 극영화보다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게 됐는데, 덕분에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생겨 인디다큐페스티발2015 데일리팀도 하게 됐고 지금도 다큐멘터리 강의를 듣고 있다.

도경 | 영화 제작, 그중에서도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는데, 인디즈 활동을 하며 보는 영화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에 큰 영향을 준다. 얼마 전 <반짝



인디즈 3, 4기 양지모



인디즈 4기 이도경



인디즈 3기 최지원



광화문에서 재개관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된 나눔자리 회원들의 이름이 기록된 좌석표.



트레일러가 상영되고 있는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앞으로는 서울극장 6관에서 이 트레일러를 만날 수 있다.

이는 박수 소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하는 독립영화나 감독이 있나?

지원 | 독립영화를 찾아보는 계기가 된 박정범 감독의 <무산일기>.

지모 | 이송희일 감독의 <아간비행>을 네 번인가 봤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도경 |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감독들을 좋아한다. 윤성현 감독의 <파수꾼>을 한동안 좋아했고, <소셜포비아>도 좋았다. 근데 지금은 이길보라 감독이 좋다.

독립예술영화관만의 매력이라면?

지원 | GV 시간.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GV가 강의 같다. 영화를 보면서 혼자서는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을 알게 해 줘 좋다.

도경 | 관객들의 태도가 좋은 게 큰 장점이자 매력인 것 같다. 관객들이 진지하니까,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지모 |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것. 영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지원 | 혼자 가도 괜찮은 게 또 장점이다. 자주 보이는 얼굴들이 많아, 알게 모르게 영화적 동지 같은 느낌이 든다.

인디스페이스가 서울극장으로 이전한다. 관객 입장에서 어떤 게 달라질까?

도경 | 서울극장에 왔던 일반 관객들이 더 쉽게 독립영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영화 보러 왔다가도 “이런 영화도 있네?” 하면서.

지모 | 시네마테크와 같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고전영화와 독립영화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잖나!

인디스페이스 상영작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도경 | 소수자를 대변하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다. 현실성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많아서 좋다. 그렇지만 일반 관객들이 선택을 할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어서 배제되곤 하니, 그게 안타깝다.

지원 | <두 개의 문>을 보고 용산 참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덕분에 세상을 조금 알게 됐고. 그런 점이 좋다. 최근에 본 <잡식가족의 딜레마>도 고기를 끊을 자신은 없지만,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고기를 먹게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지모 | 개봉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영화들도 많을 것 같다. 더 다양한 작품이 상영됐으면 좋겠다.

정부의 독립영화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최근의 정책 변화 어떻게 생각하나?

지모 | 좋은 영화를 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영화가 스크린을 통해 관객에게 소개돼야 한다. 적어도 관객이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영화를 보기 위해 투쟁이 필요한 현실이 안타깝다.

도경 | 관객들이 많이 보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게 답답하다. 관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관객 수를 늘리라는 건지.

지원 | 관객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독립예술영화를 보지만 CGV 아트하우스와 롯데 아르떼는 알아도 인디스페이스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극장도, 우리도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인디스페이스, 나아가 독립예술영화관에게 한마디!

도경 | 서울 중심부에 인디스페이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든든한 기분이야. 앞으로도 지지치 않고 열심히 상영해 주길!

지모 |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전하고 나면 더 많은 관객이 찾는 공간이 되기를! 독립예술영화관이 지역마다 뿌리 내려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원 | 그동안 고맙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화들과 좋은 기억들을 줄 거라 믿는다. 계속 응원하겠다.

취재 김도란/이은지 | 사진 김지은

나에게 독립예술영화관은!

지난 4월 20일부터 약 2주간, NOW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당신에게 독립예술영화관은 어떤 공간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서울독립영화제, 인디스페이스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벤트 페이지 등 SNS와 독립영화 쇼케이스, 인디피크닉 등이 열리는 극장에서 478명의 관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면상 모든 이의 목소리를 다 담지 못했지만,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따뜻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기를 바란다.

정리 신미혜

다른 대형 영화관들에서는 접할 수 없는 참 소중한 영화들과의 데이트 장소! _ ACT

나만 알고 있기 가까운 아지트 _ haetae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소중한데. 그 영화들은 대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진짜 영화들이다. - 관객 11

새로운 영화를 발견하는 즐거움. _ alizee

독립영화 한 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뚜렷한 색과 주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곳. 허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많이 없는 곳ㅠㅠ _ player0302

작음에서 큼을 발견하는 곳! _ ghgh5620

저에게 요즘, 독립영화예술관은 ‘영화의 시작’입니다. _ 아용

메시지가 있는 영화들을 보면서 평소 못 했던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곳. _ omeiin

진정한 영화예술의 정신과 자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순수하게 영화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곳. _ 정상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공간. 창작의 산실이자 앞으로 예술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_ 혼자놀이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만나 볼 수 있는 곳 _ pearl1313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매력을 지닌 곳. _ dewaere
세상의 소소한 것들, 혹은 지나치고 있던 사소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바라보게 만드는 공간. _ mday08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볼 수 없는 작지만 의미 있고 좋은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지역마다 한 군데 정도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_ 아가사

영화인들의 터전이죠. 독립영화관이 아니라면 좋은 영화들을 언제 스크린에서 만나 볼 수 있을지 늘 응원합니다! _ ssa729

독립예술영화관들이 폐관되면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이제 어디서 보나요? _ 관객 22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으면 적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트는 극장, 욕먹어도 좋으니 자신의 영화를 들고 싶어 하는 감독을 위한 극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관객 6

진실된 사회와 마주할 수 있는 공간! _ leejun-hyuk98

상업영화의 홍수 속에서 한줄기 햇빛같이 새로운 생각들을 만날 수 있는 곳! _ 어떤미소

자주 가는 곳! _ duddlis0

세상이 힘들어 쉬고 싶을 때 그 시간 오직 나만을 위해 쉴 수 있는 공간. _ 관객 16

나를 설레게 하는 공간. 매번 가도 갈 때마다 이번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일까 기대되고 끝난 후에도 한참을 생각하게 되는 공간. _ yuioduwl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영화관이 너무 사람같이 취향이 있고 그게 나랑 맞다고 생각할 때! 이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라면 그냥 봐도 되겠구나 싶어요. _ 성지혜

신선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곳. _ sj8081

나만의 아지트 같은 곳. 혼자 영화 보고 싶은 때가기 때문에. _ 홍사인

솔플의 쾌감을 맞출 수 있는 공간? 독립영화관은 저처럼 혼자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선지 눈치도 안 보이고 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 _ jhlee3532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을 때 혼자만 보는 풍경처럼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곳. _ ssangcum

저에게 있어서 독립영화관과 그 작품들은 한계를 깨고 지경을 넓히는 날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_ Grace Oh

무관심하게 지나치게 되는 세상의 요지경들을 직면하게 해 주는 곳. _ shysgtj

올해 초 부모님께서 이사하신 집 근처에 국도에 술관이라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그곳에 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영화를 상영해 주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활력소인 듯합니다. 전국의 독립영화관들,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며, 고마워요. _ 관객 15

치열함과 느긋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_ sirius1t

독립예술영화관이 사라지지 않고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_ jse103lj

생각이 많아지거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찾게 되는 곳! _ seulki

결핍된 삶의 다양성을 충족시켜 주는 공간! _ 백호군단

관크당하지않고 영화와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공간. 진짜 영화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공간. 앞으로도 계속 거기 있어 줘요! _ 이효은

나에게 또 다른 경험의 문이 되어 줄 곳. _ STEC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감독, 배우들과의 GV가 많아서 새로운 감독과 배우를 만나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장소. _ j5088

왜 사는데 대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또는 노력)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며 동시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_ 관객 3

저에게선 제2의 세계인 거 같아요. ㅎㅎ _ apwn282

보다 자유롭고 편한 상상을 가능케 해 주는 단골 카페 같은 곳. _ jungsu71

특별한 감동을 만드는 소중한 장소. _ 우면산인
생각지도 못한 보물들을 발견하는 공간. _ asd2149

힐링하는 장소. _ 별사탕v

독립예술영화관이 있기에 영화다운 영화, 작품다운 작품, 경험하지 못한 세계, 제대로 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남아 있길! _ ivylife80

같이 질문과 답을 그리다 올 수 있는 시간과 장소. _ b020677

쉬고 싶을 때 찾아가는 쉼터 같은 곳. 도심에서 벗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쐬는 곳. _ ahreum5

낮설지만 친해지고 싶은 친구 같은 공간. _ gk-thfl94

독립영화관에 가는 이유는 솔직함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독립영화관의 존재는 무엇이 주류이고 어떤 것이 비주류 문화인지 구분 지으려는 시선들에게 대항한다. 문화는 단지 문화일 뿐 주류, 비주류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_ 향기환

젊음을 느낄 수 있고 독창적이며, 신세계 같은 특별한 공간! _ 에스26

부산국도예술관. 영화에 대한 기본 예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틀어 주고 보러 오는 곳. _ what a life

팝콘이 없음에, 붐비지 않기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_ LemonLemon

동시대에 살면서 같이 작업해 나가는 독립영화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화 공부장 된다. _ 관객 4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크나큰 가능성과 열린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크나큰 힘을 가진 곳! _ qjtdud

그곳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유물처럼 생각하고 지나치다 가끔 들르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공간, 그러다 그 공간이 침식되어 소멸할 때가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공간. 하지만 적어도 그 종말이 장구하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잊히건 내 몸이 가책의 대속으로 문신을 새기는 기본으로 울어 줄 정도의 양심과 도리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공간. _ 김삼목

세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세상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공간. _ 쏘쑤순냥엄마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다시 문 열 때 저도 기부 동참을 해서 좌석 어딘가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극장에 갈 때마다 '아 내가 한국 독립영화를 위해 무언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해요. _ roomroom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서 평소엔 볼 수 없던 두근거림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보금자리! _ hanna724

영화 그 자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 _ 나모

독립영화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리고 꼭 봐야 할 주제를 보여 주는,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필요한 곳이라 생각해요. 일반인들의 관심과 후원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_ 관객 21

따뜻한 작은 시선들을 엿볼 수 있는 곳. _ kgsmmms

편견을 줄여 주고 다양한 감성을 느끼게 해 주는 곳. _ 알람뽕뽕

인디스페이스를 통해 정말 값진 영화들도 많이 알게 됐고,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잘 알지 못하던 사회의 면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어찌 보면 제겐 사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 혹은 수단이 된 셈이죠. 요즘 영화관이 너무 획일화되고 개성을 잃은 느낌이지만 독립예술영화관들은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하고 단단한 느낌이라 좋아요. 풍기는 분위기부터가 좋달까요. ^o^ _ 허윤정

세상을 바라보는 나와 또 다른 시각을 만나는 곳. _ weriopag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공간! _ filmone1

습관처럼 찾는 소중한 공간!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예요. _ dasom

내 인생이 비틀대던 20대에 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게 하며 결국 어떻게든 누구에게든 싸움이 있고 삶이 있고 그게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곳. _ 박진희

영화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곳! _ bborra203

독립영화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곳. _ 다다

때때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속내를 함께 치유해 주는 마음 편한 공간. _ uhaha93

접하기 어려운 독립영화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_ dktapfjd

편안하게 영화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곳. _ Alvin-SJLee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보여 주는 감독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의 공감거리를 찾아 곱씹는 공간. _ kihalover

상업영화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의미가 있는 곳. _ gogoliii

자유와 메시지가 있는 공간. _ serorita

평소 보던 영화들에서 벗어나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공간. 여행 같은 곳~♡ _ mixcat77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곳. _ zoorlfis

신선하고 에너지 있는 영화를 보여 주는 곳. _ 민트사과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곳. _ 이지혜

영화예술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텃밭! _ yarkteim

독립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줘서 너무 고마운 공간. _ ltk40011

뚝뚝의 즐거움을 얻는 곳 _ zoaqlfaa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소중한 그 이름. 무언가 도와주고 싶게끔 만드는 그 가녀린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이 지닌 무게와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에 응원하게끔 만드는 그 이름! _ nxnlee

산길을 종반쯤 올랐을 때 만난, 목을 축일 수 있는 샘물 같은 공간?! _ supijj

자유로운 상상력의 해방구! _ gyubeomshim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또한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공간. _ 해피투게더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 _ minhun9

시야를 넓혀 주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 항상 기대가 됩니다. _ jss6639

어린이날에 영화를 보러 CGV랑 메가박스 두 곳을 뒤지는데 어린이날 특수인자 뭔지 심야까지 죄다 <어벤져스>로만 채워져 있더라구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죄다 그것으로 막힌 느낌이라. 독립예술영화관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혹은 좀 더 소설적으로 풀어낸 영화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_ 관객 20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 꼭 존재해야 하고 유지해야 할 공간이죠! _ two657

독립영화를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젊음을 느끼고, 순수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 _ 휴먼조

마이너하지만 귀한 영상을 선보이는 곳. _ 도련님

지쳐 버린 나를 다독여 주는 곳. _ 영33

그 공간이 만든 변화



2007년 11월 8일, 독립영화인들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영화전용관이 '인디스페이스'란 이름으로 개관했다. 명동 중앙시네마 외벽에 붙은 주황색 간판이 어찌나 멋지고 든든했던지 기억에 생생하다. 2009년 12월 31일 그 자리를 떠나야 했고(그때 스태프들은 내려진 간판과 함께 애써 웃으며 미래를 기약했다.) 다시 2012년 5월 29일 광화문에서 재개관한 뒤 3년의 시간을 지나왔다. 이제 인디스페이스는 또다시 공간을 옮겨 6월 5일부터 서울극장 6관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소장으로서 인디스페이스의 탄생을 준비했던 원승환의 입을 빌려, 인디스페이스가 만들어 온 변화의 시간들을 되돌아본다.

TELL ME SOMETHING은 독립영화에 대한 개인들의 기억을 직접 들어 보는 일종의 구술사 코너다. 생생한 육성으로 전해지는 사건, 사고, 에피소드들을 통해, 독립영화의 중요한 고비들을 다시 기록하려고 한다. 꼭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었던 궁금한 사건 혹은 인물이 있다면, NOW로 연락 주시길. (편집자)

원승환(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1998년에 한독협(한국독립영화협회)이 생기고 독립영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들을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에 제안했는데, 독립영화전용관은 그때 영상미디어센터랑 같이 제안했어. 근데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전용관은 따로 만들기로 하고 아트선재센터 소극장을 독립영화전용관으로 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그때 와라나고 운동(2001년 관객들이 이끈 <와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방> <나비> <고양이를 부탁해> 재상영 운동) 영향으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이 먼저 진행된 거지. 결과적으로 2002년에 영상미디어센터는 일민미술관 5층에, 서울아트시네마가 아트선재센터에 먼저 생겼어.

2005년 7월에 한독협에서 '지금 필요한 한 가지, 독립영화전용관'이라는 캠페인을 했고, 영진위에서도 전용관 사업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어. 한독협이 배급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영화 배급도 하고, 흥대 카페평 같은 대안문화 공간에서 상영도 하고, 온라인 상영도 하고, 독립영화 배급 정책 보고서도 내고, 정말 다양한 배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용관 준비도 동시에 진행했어. 2007년 개관을 목표로 단성사, 씨네코아, 동숭아트홀 등등 여러 극장들을 알아보던 끝에 중앙시네마 3관으로 최종 확정을 하고, 2007년 10월에 가오픈, 11월 8일에 오픈을 하게 됐지. 그 당시 배급사는 인디스토리밖에 없었고, 영화는 많지만 배급할 준비가 돼 있는 독립영화는 거의 없었어. 독립영화 배급 환경에서 독립영화를 마케팅하고 배급할 주체들을 생산해 내는 것이 제일 시급했지. 일단 극장이 생기니까, 이전까지 개봉이 안 됐던 영화들에 개봉 기회가 열리고, 배급사는 지속적으로 영화를 공급하고, 이후 새로운 플랫폼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들이 가능했던 거고. 그때 시네마 달, 키노아이 같은 배급사들이 생겨났어. 개봉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영화들을 인디스페이스에서 개봉하면서 콘텐츠를 발굴했고, 공동체 상영, DVD 제작 지원 사업도 했고, 배급사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독립영화배급사네트워크의 구심 역할도 하고. 인터넷 동시 서비스나 IPTV 동시개봉 등 독립영화 배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배급사들과 연계하면서 이슈도 만들고, 배급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어. 독립영화전용관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어. 중요한 건 우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극장 자체에만 집중했다면 못 했을 일들을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안에서 독립영화 배급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야. 그러다 2009년에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날아갔지.

이듬해 2월에 다들 퇴직하고, 나 혼자 1년 정도 남아 있다가 2011년 2월에 배급지원센터를 해소하고, 나도 그만두고. 그 뒤에 현희(이현희 인디스페이스 프로그래머)가 다시 들어와 민간독립영화전용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개관을 준비했어. 공적 지원 전혀 없이 2011년 가을부터 1좌석당 200만 원씩 후원금을 받고 후원회원들을 모아 임대 보증금과 당분간의 운영비를 만들었고, 미로스페이스를 임대해서 2012년 5월 29일에 재개관하게 된 거야. 극장 자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배급지원센터가 했던 사업들은 이어갈 수 없었지만, 배급 시장 구조는 이미 상당 부문 전문화돼 있었어.

앞으로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확대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는 주체들이 필요하다고 봐. 지역에 독립영화전용관이 생기면 지역 배급사가 하나둘씩 생기고, 지역 영화들이 개봉 상영뿐 아니라 IPTV 서비스 등으로 계속 수익을 발생시켜 다음 영화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지. 그것이 독립영화전용관의 역할이고, 독립영화전용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인디스페이스가 중단 없이 계속 유지됐다면, 배급지원센터 활동이 계속 지속됐다면, 많은 부분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았을까.

취재 신미혜

날품팔이 인생에서 뿌리 깊은 나무로

5년쯤 전부터겠다.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사는 인간인지 밝혀야 하는, 제 땀에는 얼마간 곤란하고 겸연쩍은 상황이 닥쳤을 때, '로컬시네마를 지향하는 날품팔이 인생'이라고 스스로 대외적 존재를 부여하게 된 것이 말이다. 너무 초라한 자기비하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로컬시네마'라는 영역을 딛고 살아가려는 자의 현실을 심분 반영한 자기소개라 나름 여기고 있다. 지리지 공상과 자괴감과 패배의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술한 물음과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구석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꿈틀대며 나아가고 있는 대전세종충남의 로컬시네마에서 한뼘을 점하고 있는 대전독립영화협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2001년 출범한 대전독립영화협회(이하 '대전독협')는 현재 대전광역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다. 3년 전 현실적 필요에 의해 '대전충남독립영화협회'로 명칭 변경을 시도했으나, 충남도청 이전 관계로 향후 '충남'이 결부되는 명칭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대전시 입장에 따라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전독협은 대표와 사무국, 운영위 체제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사무국이란 명칭엔 속스럽게도 약간 어폐가 있다. 상근 체제로 운영되는 사무국은 언감생심이고, 실제로는 사무국장만이 존재하는 '나 홀로 사무국'이기 때문이다.

대전독협에서 한 해 동안 진행하는 사업은 6개의 정기 사업을 포함해 총 10개 안팎이다. 그중 상반기 중점 사업인 인디피크닉&대전충남독립영화상영회는 독립영화 진영의 화제작들과 대전충남세종의 로컬시네마를 함께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전독협의 가장 오래된 사업 중 하나다. 한편 하반기에 진행되는 대전독립영화제는 2007년 시작하여 올해 9회를 맞는 이 지역의 유일한 로컬시네마 경쟁 영화제로서, 대전독협이 실질적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다. 이 밖에 DICU(대전아마추어만화협회)페스티벌의 대한민국독립애니메이션 초청상영, 퍼블릭액세스 대전충남시민영상제, 대흥동립만세(대전프린지페스티벌)의 대전충남독립영화상영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 여건상 그동안의 사업들이 주로 상영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올해부터는 비록 1,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대전독립영화제작지원이 시작되어 지역의 독립영화 제작 여건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리라 본다.

문제는 이런 사업과 기획들이 대전독협 출범 15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비상근 사무국 1인 체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로컬시네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원 부족, 여건 부족 같은 사안들도 중요한 문제이기 는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 즉 인력 수급이다. 대전세종충남의 지정학적 특성상 사회문화의 전반적 구조가 지독히도 서울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영상 전문 인력 배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

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이지만 졸업과 동시에 9할 이상의 확률로 서울의 중앙 집중적 시스템에 인력이 흡수돼 버리는 현 상황은 로컬시네마를 황폐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한 해 250편이 넘는 로컬시네마가 출품되는 대전독립영화제의 경우 1회에서 4회까지 본선 진출 감독 전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현상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대전독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도 인력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온 데에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근래 들어 자괴감이라는 덩어리는 점점 커져만 간다. 앞서 언급한 '로컬시네마를 지향하는 날품팔이 인생'으로는, 지역의 젊은 인재들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로컬시네마인으로서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장기 복무가 되어 버린 1인 사무국장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후임 양성은커녕 각 상영회 및 영화제 행사 때 자원활동가를 확보하는 것조차 점점 버거워지는 상황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대전독협이 지역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뼈아프게 전해 준다. 이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로컬시네마를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줄 인재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진정으로 대전독협이 로컬시네마를 위한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평가받을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존에 급급했던 '날품팔이 인생'을 거름으로 하여 로컬시네마의 든든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한 터 잡기는 그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민병훈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대전독립영화제 총괄 프로그래머. 인디피크닉&대전충남독립영화상영회 및 퍼블릭액세스 대전충남시민영상제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 상영회 프로그램 총괄 진행을 맡아 언제나 쉴 빠지고(?) 박 터지게(!) 로컬시네마를 지향하는 '날품팔이' 인생을 연명하고 있다.

신재인의 <재능 있는 소년 이준섭>

이건 모두 준섭이 때문

나의 독립영화 입문은 한 편의 영화와 관련되어 있다. 20살 여름, 친구의 손에 이끌려 당시 소격동에 있던 서울아트시네마에 놀러 갔을 적에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을 봤다. 그중 단 한 편의 영화가 내 삶을 뒤흔들었다. 이후로 한동안은 영화를 보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로 구분하면서 살았다. 이게 다 <재능 있는 소년 이준섭> 때문이다.

이 영화를 연출한 신재인 감독은 당시 독립영화계의 샛별이자 장차 한국 영화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총아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02년 <재능 있는 소년 이준섭>으로 제1회 미장센단편영화제 대상을 거머쥐었고, 이듬해 <그의 진실이 전진한다>로 같은 영화제에서 절대악몽 부문 최우수작품상을 또다시 수상했다.

<재능 있는 소년 이준섭>의 매력은 발칙한 상상력에 있다. 초등학교생 준섭은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 그는 친구들의 짓곳은 장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쾌하게 분필, 지우개, 연필 등을 씹어 삼키는 위가 튼튼한 아이이자, 똥도 계는 감추듯 먹어버릴 수 있는 아이였다. 의외로 이 작품의 상징적 의미는 단순하게 해석 가능하다. 이 영화는 초현실주의적 양식을 가미한 일종의 블랙코미디로, 음식이라는 문화적 산물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금기들을 뛰어넘는 해방적 선언이자, 무정부주의의 실천임과 동시에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이다. 준섭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메시아의 세속적 형상이었다.

조금 거칠게 말해서, 내가 기억하는 2002년의 독립영화는 신재인의 작품뿐이다. <재능 있는 소년 이준섭>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었던 탄탄한 이미지들의 향연과 그 뒤에 따라오는 감각적 자극이 주는 충격 체형 때문인지, 그해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 전 작품을 봤음에도 기억에 남는 건 준섭과 재인뿐이었다. 또한 그의 작품들이 내 전두엽의 어딘가를 건드린 모양인지, 고기 맛을 본 중처럼 본격적으로 영화 보기에 뛰어들었다. 고전영화건, 상업영화건, 독립영화건 가리지 않고 좋은 영화가 있다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다. 이런 극성을 보면서 교수님도 말렸고, 아버지도 말렸고, 형도 말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그사이 신재인 감독은 장편 <신성일의 행방불명>을 내놓으며 세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나는 또 그 기운을 받아 새로운 영화를 발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애석하게도, 지금 신재인은 여기 없고 그의 행방은 묘연하다. 종종 소문으로만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더라, 그게 없어졌다더라, 그런데 결혼을 했다더라는 등. 나의 우상의 기묘한 퇴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풍문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탓에, 나로서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근황을 가장 마지막으로 들은 건 <밍크코트> 스태프들과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였다. 삼겹살과 신재인의 연결 고리를 찾고 싶지는 않지만, 그가 어딘가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말처럼 들려 안심이 되었다. 팬심에 조금 욕심을 내자면, 나는 그가 다시 시나리오를 쓰고, 카메라 앞에서 “컷”을 외쳤으면 한다. 너무 이른 퇴장을 야속해 하며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와 달라. 나의 첫눈-사랑 준섭 그리고 당신!



이도훈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재학 중. 20살에 영화를 보기 시작한 덕분에 공연히 가방 끈만 길어졌다. 가끔 책을 보고 그보다 더 가끔 극장 언저리를 서성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평소 방향은 건강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오래 지속되다 보니 당황스럽다.